

화웨이 버린 캐나다 삼성 5G 장비 택했다

삼성 캐나다 통신사 '텔러스'에 5G 장비 공급

지난해 12월 캐나다 진출 이후 새로운 성과

화웨이 배제하고 삼성 택해

삼성전자가 캐나다 대형 이동통신사 '텔러스'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비디오트론'에 이어 캐나다에서 연이어 5G 장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올해 2월 미국, 3월 뉴질랜드 통신사와의 5G 공급 계약에 이어 캐나다 텔러스에 신규 수주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러스는 캐나다 전역에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로 5G 분야에 3년간 400억 캐나다 달러(약 35조 7,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비디오트론과 계약을 맺으며 처음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또 다시 5G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캐나다 통신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텔러스는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5G 구축엔 화웨이를 배제하고 새롭게 삼성전자의 손을 잡은 사례다.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장비 공급 업체들 사이에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텔러스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에릭슨, 노키아도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

다윈 엔트위슬 텔러스 CEO는 "통신기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커넥티비티 분야의 전문성, 첨단 기술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를 공급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3대 통신사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과 벨캐나다, 텔러스가 모두 5G 구축에 '화웨이 보이콧'을 했다. 3대 통신사의 가입자 합계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82%에 달해 사실상 캐나다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된 셈이다.

다만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유럽 통신사들이 속속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5G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26.2%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에릭슨(23.4%)과 삼성전자(23.3%) 순이다.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사장)은 "여러 5G 선도국에서 축적해 온 상용화 경험과 독자적인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바탕으로 텔러스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5G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린 디옹까지 동원했는데 캐나다, 유엔 안보리 진출 좌절



비상임 이사국 노르웨이·아일랜드 선정
트뤼도, 50여개국 직접 호소에도 실패
전문가 "가을 총선 승리 확신 못 봐 패배"

"캐나다는 국제무대에 돌아온다."

2010년 캐나다가 유엔 안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실패하자 당시 야당인 자유당의원 대표였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했던 약속이다. 당시 보수당은 캐나다가 포르투갈에 밀려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을 야당에 넘겨줬다.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정에서도 캐나다의 진출이 좌절되면서 트뤼도 총리가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서방권 2개국 선정에 캐나다와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동시에 후보로 나섰다. 캐나다는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108표를 얻어 탈락했다. 반면 노르웨이는 130표, 아일랜드는 딱 3분의2인 128표 턱걸이로 통과했다. 치열한 선거전을 의식한 유엔은 코로나 19 사태에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자투표 대신에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트뤼도 총리는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고자 이사회 진출을 직접 지휘했다. 50여개국 정상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표발을 일궜다. 또 지난해 유엔에 174만 달러를 기부했다며 아일랜드(80만 달러)보다 많음을 은근히 홍보했다. 특히 각국 대사들을 캐나다에 배출한 세계적 스타 셀린 디옹 콘서트에 초대하는 등 막판에 간간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에도 패배한 트뤼도 총리는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에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국제 협력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왕립 군사학교 애덤 채프니 교수는 "캐나다, 특히 트뤼도

총리에게 큰 타격"이라며 "아일랜드는 10년 이상 운동을 해왔고, 노르웨이는 우리처럼 두 번 떨어진 다음에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뤼도 정부가 가을 총선에서 살아남을지를 확신시켜주지 못한 것이 큰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외무장관은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일부 국가와의 상호 관계는 강화됐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도 치열하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단일 후보를 내는 데 실패하면서 영권 캐나다와 프랑스어권 지부티가 격돌하고 있다. 케냐는 소말리아와 남수단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인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지부티는 케냐가 과거 이사국이었던 "국가별 순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차 투표에서 케냐(113표), 지부티(78표)는 3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18일 2차 투표에 들어간다.

지역 대표로 단독 출마한 아시아 몫은 인도(184표), 중남미는 멕시코(187표)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이사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연방경찰 상대 집단소송 노바스코샤 총격희생자 유족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 커"

주장
유사사건 방지 위해 경찰 처벌해야

노바스코샤 총격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연방경찰(RCMP)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6일 노바스코샤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연방경찰은 사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4월 포타피

크에서 발생한 총격 후 경찰이 수사관 관리에 소홀, 범인 가브리엘 워트먼이 도주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워트먼이 13시간 넘게 살인극을 벌이는 동안 경찰이 주 전역에 정식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트위터로만 상황을 알려 주민보호에 실패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족들은; ▶사건 전에 워트먼이 불법총기를 가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 대응

▶사건발생 후 트루로지역 경찰의 협조이사 무시 등의 책임을 물었다.

또 경찰이 희생자의 차량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차안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워트먼의 총격으로 경관 1명 포함 총 22명이 숨졌다. 경찰과 대치하던 범인은 사살됐다.

범인은 평소 경찰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총격 직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했다. 경찰은 워트먼의 범행동기를 지금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코리아 알버타 저널
KOREA ALBERTA JOURNAL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매주 금요일 발행

연락처 : 전화 (403) 616-7755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또는 albertajournal@gmail.com

www.abjournal.ca

주인 직접 판매

Laundromat. Dry cleaning. Depot. For sale
Good lease. Great potential. Original investment over 200k.
Asking \$ 149 900 / 2 years old
For info call Bob@ 403 990 7235

고육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스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쫑무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염두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100 이상 무료배송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Math Tutor - Alex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